

## 치 사

부처님의 말씀에 귀의하며 노인 한 분 한 분을 가족으로 섬기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제7회 서울노인영화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체대비(同體大悲)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가르침을 성실한 마음으로 실천하고,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은 우리 종단의 주요한 사명이며 종교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이러한 사명과 책무를 어르신들에게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곳입니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 10여 년 전부터 미디어 교육과 취미 교육에 역량을 집중하며 ‘문화복지’라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복지의 노하우와 성과물을 집대성한 것이 ‘서울노인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7회 서울노인영화제의 슬로건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노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세대의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해 왔던 영화제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노인 감독들의 시선으로 그려낸 세상과 청년 감독들이 생각하는 노년에 대한 영상을 관람하시다 보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다른 세대를 더 큰 마음으로 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노인영화제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피는 영화제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과 젊은이 모두가 더 가깝게 이야기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8(2014)년 9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승 합장

- 치사 : 총무원장스님
- 축사 : 서울시장

- **여는글** :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스님